

기술 봉건주의와 탈진실의 공모*

- 알고리즘 지배 시대의 진실, 지식, 윤리

정용택 (경희대학교, HK연구교수)

- I. 서론: 탈진실의 정치경제학 비판
- II. 기술 봉건주의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인식 질서
- III. 진실의 알고리즘적 왜곡과 탈진실의 공모
 1. 정보 흐름 및 해석 통제
 2. 필터 버블 및 에코 체임버 형성
 3. 가짜뉴스 및 혐오 표현을 동반한 음모론의 확대 재생산
- IV. 기독교사회윤리학의 진리 개념 재사유
- V. 결론: 진실 접근권의 윤리와 비판사회윤리학으로의 전환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3.03>

* 본 논문은 2025년 11월 29일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2025년 12월 28일 종교와 마르크스 연구회 월례세미나 발표를 통해 강원돈, 최형묵, 홍인식 박사로부터 상세한 논평을 받았다. 특히 강원돈 박사가 제기한 비판과 수정 제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혀둔다.

• ABSTRACT •

Techno-Feudalism and the Collusion of Post-Truth: Truth, Knowledge, and Ethics in the Age of Algorithmic Domination

HK Research Professor, Yongtaek Jeong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post-truth” phenomenon not merely as an epistemic crisis but as a structural outcome of “techno-feudalism,” a new political-economic order dominated by digital platforms. Big Tech’s control over cloud capital and algorithmic power commodifies truth by privatizing “general intellect” to establish a rent-seeking profit model. In this process, truth degrades into platform-manipulated information products. This structure colludes with mechanisms such as emotional mobilization, echo chambers, and filter bubbles to threaten the public sphere. Consequently, this study proposes a rethinking of truth, liberation, and the common good within Christian social ethics, highlighting the “right of access to truth” as a core ethical mandate. Ultimately, the paper contends that Christian social ethics must evolve into a “critical social ethics” capable of resisting the rentier power structures of techno-feudalism and addressing the structural concealment of truth.

Key words: Techno-feudalism, Post-truth, Algorithmic Domination, Rent Extraction, General Intellect, Right of Access to Truth, Common Good

I. 서론: 탈진실의 정치경제학 비판

지난 2016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영어사전으로 평가받는 옥스퍼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를 ‘post-truth’, 즉 ‘탈진실’로 선정하여 당시 큰 화제가 된 바 있다.¹⁾ 이는 영국의 유럽 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와 트럼프(Donald John Trump)의 당선으로 귀결된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들을 관통하며 나타난 시대정신을 포착한 것이었다. 두 사건 모두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이자 민족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극우 세력의 등장을 촉진했던 대표적인 그해의 사건들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지금, 탈진실은 더 이상 특정 정치적 국면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시대 공론장과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탈진실(post-truth)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탈진실을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²⁾ 또 다른 권위 있는 영어사전인 캠브리지 사전은 탈진실을 “사실적 진실보다는 감정과 개인적 신념이 공공 담론과 의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설명한다.³⁾

새로운 용어이기는 하지만 그간에 학계에서도 탈진실에 관한 상당한

1)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 OED)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하며, 1884년 인쇄 제본형 초판이 부분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해 1928년에 44년 만에 초판이 완성된 방대한 사전이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과 추가를 거치면서 현재는 50만 개 이상의 단어와 구문이 실려 있고, 3개월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새로운 단어와 용례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Oxford_English_Dictionary (2025년 11월 10일 접속)

2) <https://languages.oup.com/word-of-the-year/2016/> (2025년 11월 10일 접속)

3)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post-truth> (2025년 11월 10일 접속)

수준의 개념 규정이 이루어져 왔다. 우선 탈진실 연구를 주도해 온 철학자 매킨타이어(Lee McIntyre)는 탈진실을 “현실을 정치적 상황에 끼워 맞추기”(the political subordination of reality)로 정의하며,⁴⁾ 사실보다 감정이 더 정확하다고 여기고 옳다고 느끼는 것을 믿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즉, 탈진실은 사람들이 더 이상 진실에 기반하여 신념을 형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임계 상태를 의미한다.⁵⁾

한편, 사회학적으로 탈진실은 후기 근대사회의 전문가 권위 실추, 제도에 대한 신뢰 붕괴, 그리고 파편화된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집합적 의미 구성의 위기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학평론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카쿠타니는 탈진실 현상이 어떻게 주관성이 객관성을 압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주의가 어떻게 반지성주의에 의해 공격받는지 분석하는 가운데, 탈진실을 ‘거짓말’, ‘선전’, ‘가짜뉴스’, ‘정치적 조작’, ‘에코 체임버’, ‘사실에 대한 무관심’ 등이 혼재되어 포화 상태에 이른 공론장의 위기 징후로 규정한다.⁶⁾ 같은 맥락에서, 사회학자 김종길은 탈진실 현상이 “기존의 지식이론 또는 진리이론의 권위 상실”을 전제로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담배 회사가 과학 지식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례를 들며, “기성 언론과 과학이 제도화된 권위를 통해 부여해 온 확정적 진실”이 의문시되고 “사회 구성원의 지식 신뢰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을 탈진실의 핵심 역기능으로 분석한다.⁷⁾

4) Lee McIntyre, *Post-Truth*. 김재경 역, 『포스트트루스』 (서울: 두리반, 2019), 6.

5) 위의 책, 21-32. 한편, 철학사적 관점에서 탈진실은 “진리 대응설”(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의 위기이자 실용주의적 진리관이 극단화된 형태로 이해되며, 인식론적 상대주의가 정치화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Vittorio Bufacchi, “Truth, lies and tweets: A consensus theory of post-truth,”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47/3 (2021), 347-361.

6) Michiko Kakutani, *The Death of Truth* (New York: HarperCollins, 2019), 1-3.

7) 김종길, “디지털 사회의 심화와 ‘탈진실’ 시대의 진실 찾기,” 『사회사상과 문화』 26/3 (2023), 247, 264-265.

탈진실 현상의 가장 잘 알려진 예시라 할 수 있는 ‘가짜뉴스’(fake news)⁸⁾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언론정보학, 커뮤니케이션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등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구조적 특성 —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⁹⁾ 소셜 미디어의 확산 메커니즘,¹⁰⁾ 주목 경제(또는 ‘관심 경제’, attention economy)¹¹⁾ — 이 어떻게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
- 8) 탈진실과 가짜뉴스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탈진실은 감정이나 신념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 현상이며, 가짜뉴스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탈진실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지고, 사람들이 사실보다 감정과 서사, 개인적 믿음에 더 크게 반응하는 사회적 상황을 말한다고 했을 때, 특히 디지털 미디어와 AI 등의 정보기술 발달로 인해 허위정보(가짜뉴스)의 생산·유통이 크게 늘어나면서, ‘진실’ 또는 ‘사실’(fact) 자체의 사회적 설득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객관적 사실보다 자신에게 더 와닿는 감정과 이야기(서사)에 쉽게 동화되어 진실 또는 사실보다 감성적 요소가 사회 의사결정과 여론 형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의 출현이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가짜뉴스의 범람이 탈진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McIntyre, 『포스트트루스』, 123-164 참조.
- 9) Eli Pariser, *The Filter Bubble: What the Internet Is Hiding from You*. 이현숙이정태 역, 『생각 조종자들』 (서울: 알키, 2011). 프레이저에 따르면,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플랫폼의 개인화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보고 싶어 하는 것”(클릭할 가능성이 높은 것)만을 선별하여 보여준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편향을 강화하는 정보(편향된 정보)에만 둘러싸이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에 갇히게 된다. 알고리즘은 사실 검증을 목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user)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동한다. 이는 개인적 분석이 검증된 정보를 대체하고 하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을 대체하는(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현상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한다.
- 10) Cass R. Sunstein, *#Republic: Divided Democracy in the Age of Social Medi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선스타인은 프레이저가 지적한 필터 버블과 유사하게 ‘에코 챔버’(echo chamber, 반향실 효과)를 경고한다. 그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환경은 사용자가 자신과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하고만 소통하게 만들어, 집단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편향된 정보(가짜뉴스)는 이 에코 챔버 내부에서 급속도로 유통되며, 반대 의견(검증된 정보)은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 11) Tim Wu, *The Attention Merchants: The Epic Scramble to Get Inside Our Heads*. 안진환 역, 『주목하지 않을 권리』 (서울: 알키, 2019). 현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은 사용자의 주목 또는 관심(attention)이며, 플랫폼 기업들은 이 관심을 광고주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사용자의 관심을 더 오래, 더 강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이며, 감정적인 콘텐츠가 유리하다. 따라서 진실하지만 지루한 정보보다 거짓이

가속화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즉, 탈진실을 거짓이 진실을 대체하고, 감정이 정직성을 대체하며, 개인적 분석이 검증된 정보를 대체하고, 하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을 대체하는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¹²⁾ 이러한 관점에서 탈진실은 전통적 미디어의 사실 검증 역할이 무너지고 소셜 미디어가 편향된 정보를 검증 없이 급속히 확산시키는 구조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처럼 ‘가짜뉴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학적 분석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연구의 핵심을 탈진실 현상으로 정확히 짚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분야의 연구들은 탈진실 현상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알고리즘’, ‘주목 경제’, ‘플랫폼 메커니즘’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만들어 내는 필연적 결과로 분석한다.

이처럼 탈진실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감정과 개인적 신념이 객관적 사실과 증거보다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를 표상하는 시대정신(*Zeitgeist*)으로 통용된다. 하지만 탈진실 현상을 일반적으로 논

지만 자극적인 정보(가짜뉴스)가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구조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는 허위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가속화되는 근본적인 경제적 이유를 설명한다. 반면에 주목받는 이를 ‘감시 자본주의’(surveillance capitalism)라는 더 큰 틀에서 분석한다. 플랫폼은 단순히 관심을 파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 ‘행동 예측 상품’을 만든다. 사용자의 참여(클릭, 공유)를 극대화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며, 이 과정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주목받는 관점에서, 탈진실과 가짜뉴스 현상은 감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낳은 ‘외부 효과’이자, 수익 극대화를 위한 구조적 산물임을 보여준다. 이 글은 감시 자본주의를 기술 봉건주의 논의로 확장할 것이다. Shoshana Zuboff,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김보영 역, 『감시 자본주의 시대』 (서울: 문학사상사, 2021).

- 12) Soroush Vosoughi, Deb Roy, and Sinan Aral, “The spread of true and false news online,” *Science* 359 (March 9, 2018), 1146-1151. 이 MIT 연구팀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트위터에서 유포된 모든 검증된 뉴스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가짜뉴스는 진실된 뉴스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깊게,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놀랍게도 이러한 차이는 봇(Bot)이 아닌 ‘인간’에 의해 주도되었다. 사람들은 가짜뉴스에 대해 ‘놀라움’(surprise)과 ‘혐오’(disgust)와 같은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며, 이러한 감정적 요인이 재전송(공유)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의 확산 메커니즘이 객관적 사실(진실)이 아닌 감정적 자극(거짓)에 구조적으로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조사 분석으로 실증했다.

의되듯 인식론적 혼란, 특정 정치 세력의 선전(propaganda) 전략, 혹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부재 문제로 축소 내지 환원하는 것은 현상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이다. 주보프의 감시 자본주의 이론이 보여주듯이, 탈진실은 고립된 사회·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21세기 디지털화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정치경제적 질서와 구조적으로 공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보프의 감시 자본주의 이론은 이 새로운 정치경제적 질서를 여전히 ‘자본주의의 변종’, 즉 데이터를 상품화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분석하는 데 그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분석은 탈진실 현상의 배후에 있는 수익 창출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데는 유효하지만, 21세기 디지털 권력의 본질을 ‘이윤’(profit)이 아닌 ‘지대’(rent)의 관점에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현 체제가 ‘산업자본주의’(industrial capitalism)와 질적으로 다른 논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간과하게 만든다.¹³⁾ 즉, 오늘날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심화가 아니라, 독점적 플랫폼(영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대 추출이 이윤을 압도하는 ‘기술 봉건주의’(techno-feudalism)라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¹⁴⁾ 이 새로운 권력

13) 이러한 이윤 중심의 산업자본주의와 지대 중심의 새로운 경제체제 간의 질적 차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필자의 다른 논문을 참조하라. 이 논문은 현대 자본주의가 노동과 생산을 통한 이윤 획득보다 자산(assets)의 소유 및 독점을 통한 지대 추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지대추구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로 재편되었음을 논증한다. 이에 관해서는, 정용택, “지대추구 자본주의에 대한 기독교경제윤리적 비판,” 『기독교사회윤리』 61 (2025), 353-366 참조.

14) 물론 기술 봉건주의 담론은 여전히 정치경제학계에서 치열하게 논쟁 중인 가설적 성격을 띤다. 일례로 에브게니 모로조프는 빅테크 기업들의 행태가 여전히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의 연장선에 있으며, 이를 봉건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분석적 명료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세드릭 뒤랑이 지적하듯, 21세기 디지털 경제는 생산적 투자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급증하는 이른바 ‘생산적 교착’(productive impasse)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 체제의 핵심 동력이 상품 생산을 통한 이윤 획득이 아닌, 독점적 지배력과 약탈적(predatory) 접근 통제를 통한 지대 추출로 질적 전환을 이루어 있음을 시사한다. 기술 봉건주의 가설을 둘러싼 모로조프와 뒤랑의 논쟁에 관해서는, Evgeny Morozov, “Critique of techno-feudal reason,” *New Left Review* 133/134 (2022), 89-126; Cédric Durand, “Scouting capital’s frontiers,” *New Left Review* 136

구조는 필연적으로 그에 조응하는 새로운 인식 질서를 강제한다.

따라서 이 글의 핵심 논제는 탈진실이 기술 봉건주의의 ‘인식 질서’(epistemic order)라는 것이다. 즉,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진실의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클라우드 자본’(cloud capital)이 지배하는 새로운 권력 구조가 진리의 생산과 유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한 필연적 결과물이다. 이러한 접근은 탈진실 현상을 다루는 기존 학계의 연구들과 명백한 차별점을 갖는다. 기존 연구들은 이 현상을 주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하며 가짜뉴스의 확산이나 정치적 양극화 같은 증상 분석에 집중해 왔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 비판의 관점에서 이러한 증상들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다. 즉, 탈진실을 기술 봉건주의의 지대추구적 수익 모델이 낳은 필연적 결과로 파악하는 가운데, 클라우드 자본의 권력 구조가 진리 생산 방식을 재편한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2022), 29-39 참조. 본 연구는 기술 봉건주의 테제를 이중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한편으로, 정치적·지배구조적 차원에서 기술 봉건주의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에릭 스윙 게도우가 분석한 바와 같이, 디지털 플랫폼은 사회적 공통 자산인 ‘일반지성’(general intellect)을 사유화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대중을 폐쇄적 회로 안에 가둠으로써 흡사 봉건적 형태의 종속 관계를 구축한다. Erik Swyngedouw, “Capitalism Is Over, But the New Is Worse: Reflections on Rent, Services, and Capitalist Feudalism,” in *The Value of Place: Exploring Regional Development and Land Use Strategies*, ed. F. Moulaert and A. Mehmood (Cheltenham: Edward Elgar, 2025), 21-36. 이러한 비대칭적 권력 관계와 탈진주적 통제 양상을 비판하는 데 ‘기술 봉건주의’라는 용어는 정치적 비판 도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가치론적 차원에서 기술 봉건주의 테제는 한계를 드러낸다. 바루파키스 등은 디지털 플랫폼의 수익을 봉건적 지대와 직접 동일시하지만, 지대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부족하다. 특히 마르크스의 『자본』 제3권 지대 이론에 대한 검토 없이 “지대 = 봉건주의”라는 등식을 설정하는 것은 이론적 비약이다. 최근에 코헤이와 류지는 지대가 봉건제가 아닌 자본주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독점적 잉여이윤의 고정화 메커니즘임을 밝혀 냈다. Kohei Saito and Ryuji Sasaki, “Rentier capitalism, technofascism and the destruction of the common,” *Area Development and Policy* (2025), 1-15. 다음 장에서 이들의 논의에 기초하여 디지털 플랫폼의 지대 추출 메커니즘을 설명할 것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이 글은 먼저 기술 봉건주의 테제를 공유하는 일부 비판적 정치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원용하여 기술 봉건주의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그것이 강제하는 인식 질서를 분석한다(II장). 이어서,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진실을 정보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탈진실과 공모하는지 세 가지 구체적 메커니즘을 통해 상세히 논증한다(III장).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알고리즘 지배 시대에 기독교사회윤리학의 핵심 개념인 진리, 해방, 공동선을 재사유할 것을 제안하며(IV장), 최종적으로 진실 접근권의 윤리를 제시하고 기독교사회윤리학이 나아가야 할 ‘비판사회윤리학’으로의 발전을 촉구하며 결론을 맺는다(V장).

II. 기술 봉건주의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인식 질서

탈진실 현상의 정치경제적 토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시대의 자본 축적 방식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 앞서 인용한 뒤랑과 스윙게도우 외에도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 조디 딘(Jodi Dean), 매켄지 와크(McKenzie Wark) 등 다수의 비판적 정치경제학자들은 21세기에 나타나는 경제와 노동의 디지털화 현상— 재산 소유권의 극단적 집중,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생태학적 위기— 이 단순한 자본주의 발전의 효과가 아니라, 경제 체계의 논리 자체에 질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주장한다.¹⁵⁾ 이들에 따르면, 우리

15) 기술 봉건주의 가설을 제안하는 대표적인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Yanis Varoufakis, *Techno-feudalism: What Killed Capitalism*. 노정태 역, 『테크노퓨달리즘: 클라우드와 알고리즘을 앞세운 새로운 지배 계급의 탄생』 (서울: 21세기북스, 2024); Cédric Durand, *How Silicon Valley Unleashed Techno-feudalism: The Making of the Digital Economy*. 주명철 역, 『기술 봉건주의: 빅데이터 제국에 포획된 현대 경제와 민주주의』 (서울: 여문책, 2025); Jodi Dean, *Capital's Grave: Neofeudalism and the New Class Struggle* (London: Verso, 2025); McKenzie Wark, *Capital Is Dead: Is This Something Worse?* (London: Verso, 2019).

가 알고 있던 자본주의는 현재 단말마 상태에 있으며, ‘기술 봉건주의’, ‘자본주의적 봉건주의’(capitalist feudalism), 혹은 ‘신(新)봉건주의’(neo-feudalism)라 불리는 새로운 정치경제적 구성체가 자본주의를 대체했다.

쉽게 말해 기술 봉건주의 가설은 현재의 체제가 신자유주의나 세계화로 대변되는 종래의 자본주의의 모순들을 해결하는 대신 “결합되고 불균등한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 파국”을 가속화하며,¹⁶⁾ 잉여가치 생산 또는 이윤 축적에 의해 작동하는 종래의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지대 추출에 의해 움직이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했음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체제는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 — 구글(Google), 애플(Apple),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아마존(Amazon),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테슬라(Tesla) 등 — 에 의한 전 지구적 지배로 특징지어진다. 바루파키스가 ‘클라우드 자본’(cloud capital)을 소유한 ‘클라우드 영주’(cloudalists)라 부르거나,¹⁷⁾ 와크가 정보의 ‘벡터’를 소유한 ‘벡터주의 계급’(vectoralist class)¹⁸⁾이라고 칭하는 이들(이하 ‘디지털 영주’(digital lords)로 통칭)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GDP를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물론 이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자본 축적 방식에서 기인한다.¹⁹⁾

16) Swyngedouw, “Capitalism Is Over, But the New Is Worse,” 22.

17) Varoufakis, 『테크노퓨달리즘』, 157-192.

18) Wark, *Capital Is Dead*, 55-59.

19) 2020년 팬데믹 초기에 아마존 창업자 베조스(Jeff Bezos)의 재산이 단 24시간 만에 130억 달러(한화로 약 1조 5천억 원) 증가한 사례는 이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연간 (또는 베이조스의 경우처럼 일간) 수십억 달러의 증가와 감소는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흔한 일이다. 영국의 비판적 법학자 아일랜드(Paddy Ireland)는 이러한 현상이 그들이 소유한 재산의 본질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한다. 도대체 그들이 소유한 재산의 성격이 어떠하기에 이토록 거대한 변동을 야기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부의 본질(nature)과 부로 간주되는 재산의 유형에 관해 무엇이 이러한 거대하고 급격한 가치 변동을 발생시키는가?” 아일랜드에 따르면, 이에 관한 답변은

기술 봉건주의 체제에서 자본 축적의 핵심 동력은 ‘지대 추출’(rent extraction)이다. 과거 산업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이 공장 노동자의 노동 착취를 통한 잉여가치 생산(즉, ‘이윤’)이었다면, 기술 봉건주의의 핵심 동력은 노동 착취가 아닌 가치의 ‘수탈’(expropriation)이다.²⁰⁾ 즉, “서비스, 임대료, 라이선스, 수수료” 등 플랫폼 독점을 통한 지대 추출이 이윤을 대체한다.²¹⁾ 이러한 지대 추출은 정보, 지식,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본질적으로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생산한 ‘일반지성’²²⁾을 빅테크 기업이 사유화

주식, 채권, 지식재산권과 같이 ‘무형 재산(intangible property)’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른바 ‘자본으로서의 재산(property-as-capital)’이라 불리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재산의 지배적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핵심적 특징은 그것이 발생시키는 금융적 수익이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이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임노동(또는 비자유노동)에 대한 직접적 착취를 통해서든,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 생산물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다양한 과정들—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지대 지급, 또는 라이선스 사용료 등—을 통해서든 수익이 ‘타인의 노력’의 결과물을 전유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 활동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루파키스 등이 지적하듯, 현재의 체제는 이윤 생산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체제의 핵심 동력이자 지배적 논리가 ‘이윤’에서 ‘지대로, ‘시장’에서 ‘플랫폼(영지)’으로 헤게모니가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Paddy Ireland, *Property in Contemporary Capitalism* (Bristol, UK: Bristol University Press, 2024), 79-80.

20) Vali Stan, “Big Tech Rentiership and the Techno-Feudal Hypothesis,” *The New School Economic Review* 13 (2025), 13-28.

21) Jodi Dean, “Neofeudalism: The End of Capitalism,” *Los Angeles Review of Books* (May 12, 2020). <https://lareviewofbooks.org/article/neofeudalism-the-end-of-capitalism> (2025년 11월 10일 접속)

22) 일반지성(일반적 지성, general intellect)은 지식과 정보가 사회 전반에 걸쳐 분산되고 공유되면서 생산과 사회 변화를 이끄는 집합적 지성을 의미한다. 대공장의 기계화 현상과 관련하여 마르크스에 의해 처음 제시된 용어로서 기계가 발전할수록 생산이 점점 더 사회적 협업의 형태를 띠게 되고, 이는 다시 생산자들의 집합적 지성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대 학자들에 의해 이 용어는 더 이상 개별 노동자의 단순한 노동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지식과 협력이 생산의 핵심 동력이 된다는 의미로 재해석되었다. 일반지성에 관해서는 Karl Mar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김호균 역,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 (서울: 그린비, 2007), 367-391, 특히 382 참조. 이 개념의 현대적 적용에 관해서는, Nick Dyer-Witheford, *Cyber-Marx: Cycles and Circuits of Struggle in High-Technology Capitalism*. 류현신승철 역, 『사이버-맑스: 첨단기술 자본주의에서의 투쟁주기와 투쟁

(privatization)함으로써 가능해졌다.²³⁾ 이들은 생산 과정에 직접 기여하기보다, 지식재산권(IP)과 같은 무형 자산과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및 ‘잠금 효과’(lock-in effect)를 무기로 자신들이 독점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봉건제적) 영지’(fiefdom)에 대한 접근 권한을 통해 막대한 지대를 징수한다. 전통적인 산업 생산은 중국, 베트남 등 남반구로 이전되며, R&D 지출조차 생산성 향상이 아닌 ‘제로섬 게임’에서 지대 추출 경로를 고착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된다.²⁴⁾

요컨대, 디지털 플랫폼의 지대 추출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 첫째, 우수한 알고리즘과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은 다른 경쟁자보다 높은 생산성을 확보함으로써 잉여이윤을 얻는다. 이는 비옥한 토지가 더 많은 수확을 가능하게 하듯이, 플랫폼의 기술적 우위가 구조적으로 고정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은 경쟁자의 진입을 법적으로 차단하여 사용료 수입을 보장한다. 이는 토지 소유 그 자체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듯이, 인위적 진입장벽을 통해 지대를 징수하는 메커니즘이다. 셋째, 대체 불가능한 네트워크 효과를 지닌 플랫폼(구글 검색,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은 그 자체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여 지대를 추출한다. 이러한 지대는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사회적 부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사회 전체로부터 부를 전유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이는 상업이윤이나 이자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상업이윤과 이자가 산업자본이 생산한 잉여가치의 분배인 반면, 지대는 자본이 자유롭게 재생산할 수 없는 생산수단의 구조적 독점—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네트워크 효과, 잠금 효과—을 통해 사회적 부를 직접 전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순환』(서울: 이후, 2003), 453-461 참조.

23) Swyngedouw, “Capitalism Is Over, But the New Is Worse,” 27.

24) Durand, 『기술 봉건주의』, 277-279.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지배 질서가 새로운 계급 구성을 강제한다는 점이다. 디지털 플랫폼이 새로운 영토가 됨에 따라, 플랫폼 사용자들은 바루파키스가 말한 ‘클라우드 농노’(cloud serfs) 내지는 ‘디지털 농노’(digital serfs) 신세로 전락한다.²⁵⁾ 이들은 플랫폼에 종속되어 자신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이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직접 참여로 가장한 ‘무임 노동’(free labor)이다. 뒤랑의 분석처럼, 이는 시장 교환이 아니라 봉건적 ‘영주세’(seigniorial levy)에 가까운 수탈이다.²⁶⁾ 이 계급구조의 최상위에는 디지털 영주가, 그 아래에는 워크가 ‘해커 계급’이라 칭한, 종종 불안정한 유목민적 ‘정보 노동자’ 계층이 존재한다. 그리고 최하층에는 자신의 생산수단(차량, 모터사이클 등)을 스스로 조달하는 거대한 깃(gig) 노동자 군대가 자리한다.²⁷⁾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지대추구적 성격이 극소수의 플랫폼 소유주와 소수의 고가치 사슬 노동자를 제외한 세계 인구 대부분을 자본의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잉여적 존재’(surplus existence)로 배제한다는 점이다.²⁸⁾ 과거의 산업자본주의가 노동력을 착취했다면, 오늘날의 기술 봉건주의는 대다수의 대중을 배제한다.

이러한 기술 봉건주의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필연적으로 인식론적 독점을 수반한다. 디지털 농노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어 어떠한 가치를 생산하는지 알지 못한 채 정보로부터 소외된다. 정보에 대한 접근, 해석의 권한, 소통의 조건 자체가 소수의 기술 권력, 즉 디지털 영주에 의해 통제되고 독점되는 것이다.²⁹⁾ 나아가 이는 주권(sovcreignty)의 파

25) Varoufakis, 『테크노푸달리즘』, 144-146.

26) Durand, 『기술 봉건주의』, 245.

27) Wark, *Capital Is Dead*, 51-54; Jeremy Gilbert, “Techno-feudalism or platform capitalism? Conceptualising the digital socie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27/4 (2024), 563-564.

28) Swyngedouw, “Capitalism Is Over, but the New Is Worse,” 21-22.

29) Richard Westra,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Capitalism: Financialization, Globalization and Neofeudalism* (London: Routledge, 2024), 123-124.

편화와 자본주의의 특징이던 경제와 정치의 분리가 종식되고 양자가 다시 융합되는 현상을 동반한다.³⁰⁾ 영주가 소유한 플랫폼(영지)에서는 ‘초경제적 강제’(extraeconomic compulsion)가 작동한다. 과거 봉건 영주가 신분적 구속력을 통해 농노를 묶어두었듯, 디지털 영주들은 네트워크 효과와 잠금 효과를 통해 사용자가 플랫폼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구조적 구속력은 기술 봉건주의가 인식 주체의 지식과 윤리를 탈구조화하고 ‘진실 접근권’(right of access to truth)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적 기반이 된다.³¹⁾

III. 진실의 알고리즘적 왜곡과 탈진실의 공모

기술 봉건주의라는 변화된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진실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변질된다. 진실은 더 이상 객관적 검증을 거친 보편적 사실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이러한 지위의 상실은 단순한 현상을 넘어, 객관적 실재와 명제 간의 일치를 중시했던 고전적 진리 대응설의 총체적 위기를 의미한다. 기술 봉건주의하에서 진실의 가치는 ‘대응’(correspondence)이 아닌 ‘유통’(circulation)과 ‘정서적 반향’(affective resonance)에 의해 결정된다. 이제 진실은 알고리즘에 의해 배포되고, 클릭 수와 정서적 반응에 따라 보상받는 ‘정보 상품’(information commodity)으로 전락했다. 이 정보 상품의 핵심 가치는 데이터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사용자의 ‘주목’(attention) 및 ‘정서’(affect) 그 자체이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모든 상호작용을 유도하며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을 착취하고, 이를 ‘클릭 보상 시스템’을 통해 광고 수익, 즉 디지털 지대로 직접 전환한다.³²⁾ 이 과정에서

30) Peter Alexander Linardakis, “Neo-Feudalism and the Crisis of Capitalist Hegemony,” *Essex Student Journal* 16/1 (2025), 10.

31) Westra,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Capitalism*, 124.

32) Nick Smicek, “Value, rent and platform capitalism,” in *Work and Labour Relations*

진실 여부는 유통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부차적 요소로 격하된다.

이러한 변질은 기술 봉건주의의 수익 모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II장에서 분석했듯이, 기술 봉건주의의 지대 추출 모델은 사용자의 플랫폼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 지대 추출은 본질적으로 이용자들의 ‘무임 노동’에 기반한 ‘기계적 예속’(machinic enslavement)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³³⁾ 알고리즘이 ‘정서적 반응을 극대화’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분노, 혐오, 놀라움과 같은 강렬한 정서적 반응이 사용자의 주목(플랫폼 체류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대화하며, 가장 많은 데이터 ‘잉여’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인 정보가 아니라 사용자의 정서적 반응을 극대화하는 자극적인 정보를 우선적으로 배포하도록 설계된다.³⁴⁾ 여기서 통제와 착취의 대상은 고전적 근대 주체인 ‘개인’(individual)이 아니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가 예견했듯이, ‘통제 사회’(societies of control)의 권력은 주체를 데이터 프로파일, 즉 주체를 분할 가능한 ‘분체’(分體, dividuals)로 재편한다.³⁵⁾ 알고리즘은 ‘참’ 또는 ‘객관적 사실’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체 프로파일에 가장 자극적인(클릭 가능성이 높은) 정서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변조’(modulation)하여 공급한다. 객관적 사실은 종종 지루하며, 감정적 자극을 유발하는 데 불리하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은 이 변조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노이즈로 간주되어 구조적으로 배제된다.

in Global Platform Capitalism, ed. Julieta Haidar and Maarten Keune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2021), 29-45.

33) Maurizio Lazzarato, *Signs and Machines: Capitalism and the Production of Subjectivity*. 신병현·심성보 역, 『기호와 기계』 (서울: 갈무리, 2017).

34) 김홍중, “플랫폼의 사회이론: 플랫폼 자본주의와 알고리즘 통치성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41 (2022), 7-48.

35) Gilles Deleuze, “Postscript on the Societies of Control,” *October* 59 (Winter, 1992), 3-7.

기술 봉건주의의 수익 모델(지대 추출)은 본질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억압하고 감정화된 정보 소비를 조장하는 탈진실적 환경을 요구한다. 이러한 감정화된 정보 소비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진실’(emo-truth)이 객관적 진실을 대체하는 인식론적 질서의 재편이다. ‘루머 폭탄’(rumor bombs)과 같이 감정적으로 격렬한 콘텐츠는, 그것이 명백한 거짓일지라도, 알고리즘적 보상을 통해 진실보다 더 진실하게 유통된다. 진실은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해 유통되는 것, 설득되는 것, 전파되는 것이 되었다. ‘사실성’(facticity)과 탈진실의 이분법적 대립 자체가 현 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은폐하는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술 봉건주의는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의 유통과 소비를 통제함으로써 ‘현실’(reality)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부여하기 때문이다.³⁶⁾ 나아가 이는 사실 폭로를 통해 권력의 ‘수치심’을 자극하여 개혁을 유도했던 전통적인 ‘정보 정치’(information politics) 모델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 기술 봉건주의가 수반하는 ‘디지털-권위주의적 국면’(digital-authoritarian conjuncture)은 사실 자체를 불신하게 만듦으로써 권력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탈수치심’(post-shame) 시대를 공고히 한다.³⁷⁾ 그러한 환경에서 빅테크의 현실 조작은 아무런 정치적·윤리적 저항 없이 지대를 추출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탈진실 현상을 직접적으로 심화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기술 봉건주의와 탈진실의 공모는 다음 세 가지 구체적인 메커니즘

36) Lukas Meisner and Pietro Daniel Omodeo, “Beyond Facticity and Post-Truth: Towards a Marxist Political Epistemology,” *Historical Materialism* 33/1 (2025), 88-118.

37) Josh Bowsher, “After truth, after shame... after information politics? Rethinking the epistemologies of human rights in the digital-authoritarian conjunctur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28/8-9 (2024), 1501-1525; Dara Conduit, “The political economy of digital authoritarianism: evidence from the Iranian regime’s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Democratization* (2025), 1-23.

을 통해 작동한다.

1. 정보 흐름 및 해석 통제

디지털 영지를 소유한 빅테크 기업은 데이터를 독점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의 노출과 확산을 제어한다. 디지털 영지의 통제 방식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분석한 규율 사회의 물리적 폐쇄 환경과 질적으로 다르다. 규율 사회가 공장, 학교, 병원과 같은 닫힌 공간에서 개인을 ‘주형’(molding)을 통해 교정하려 했다면, 들뢰즈가 예견한 통제 사회로서의 기술 봉건주의는 네트워크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분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변조를 수행한다.³⁸⁾ 이러한 통제력은 특정 정보나 관점을 인위적으로 증폭시키고, 반대되는 정보는 차단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동시에 그것은 차단이나 검열 같은 기존의 소극적 형태의 억압을 넘어선다. 빅테크 기업은 플랫폼 경제의 불가피한 중개자로서 사용자가 애초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주, 즉 선택의 매개변수 자체를 사전에 설계하고 결정한다. 정확히는 플랫폼이 상호작용 데이터에 대한 ‘인식적 특권’(epistemic privilege)을 독점한다고 볼 수 있다.³⁹⁾ 이는 소수의 디지털 영주가 현실 해석의 권한을 독점하는 현대판 검열 기제이자 여론 조작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위험성을 지닌다. 사용자는 자신이 통제된다는 사실(검열의 경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영주가 설계한 ‘현실’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게 된다. 이는 단순한 여론 조작을 넘어, ‘분체 프로펠’의

38) Yuk Hui, “Modulation after control,” *New Formations* 84/85 (Autumn 2015), 74-91.

39) Nick Srnicek, *Platform Capitalism*. 심성보 역, 『플랫폼 자본주의』 (서울: 킹콩북, 2020); Andrea Coveri, Claudio Cozza, and Dario Guarascio, “Monopoly Capital in the time of digital platforms: a radical approach to the Amazon cas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46/6 (2022), 1341-1367.

욕망과 주체성 자체를 자본 축적(지대 추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종하는 더욱 강력한 통치성(governmentality)의 형태이다.⁴⁰⁾

2. 필터 버블 및 에코 체임버 형성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사용자의 기존 정서와 신념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⁴¹⁾ 이러한 정보 환경은 우연적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알고리즘이 사용자 반응을 지표로 삼아 점진적으로 최적화된 결과물로서 감정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플랫폼 경제의 구조적 동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⁴²⁾ 이러한 알고리즘적 선별 메커니즘이 초래하는 대표적 현상이 바로 필터 버블과 에코 체임버이다. 필터 버블은 플랫폼의 추천·검색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과거 클릭, 시청, 검색 기록을 바탕으로 선호에 맞는 정보만을 선별·제공함으로써 상이한 관점이나 반대 의견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적 메커니즘을 지칭한다. 그리고 에코 체임버는 유사한 신념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개인들이 동일한 매체, 채널, 커뮤니티 안에 집적되어 동질적인 의견만을 반복적으로 주고받는 소통 구조를 의미하며, 선택적 노출과 확장편향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이 보다 직접적으로 작동한다. 양자는 기원과 작동 원리에서 구분되지만, 실제 온라인 현실에서는 알고리즘이 유사한 성향의 이용자와 콘텐츠를 묶어 필터 버블을 형성하고, 그 내부에서 에코 체임버가 작

40) Michaela Ott, "Dividual subjectivations in the society of control," *Coils of the Serpent* 5 (2020), 163-174; Juho Rantala and Mirka Muilu, "Simondon, Control and the Digital Domain," *Theory, Culture & Society* 41/4 (2024), 23-40.

41) Pariser, 『생각 조종자들』, 31-34; Zeynep Tufekci, "Algorithmic Harms Beyond Facebook and Google," *Colorado Technology Law Journal* 13 (2015), 203-218.

42) Zuboff, 『감시 자본주의 시대』, 385-395.

동하여 특정 신념과 서사가 메아리처럼 증폭되는 방식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된다. 이러한 구조는 사실·증거보다 정체성, 감정, 선호가 우선되는 탈진실 상황을 심화시키며, 가짜뉴스가 한 번 유입될 경우 반복적 공유와 상호 강화 과정을 거치면서 집단 내부에서는 ‘검증된 진실’로 오인되기 쉽게 만든다. 그 결과 상이한 정치·이념 집단 간에는 공통의 사실 기반이 약화되고, 상대의 정보 전체를 일괄적으로 가짜뉴스로 낙인찍는 경향이 강화되며, 민주적 공론장 내 합리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약화된다.⁴³⁾

필터 버블의 형성 과정은 오래전부터 정치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축적되어 온 ‘선택적 노출 이론’(selective exposure theory)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고전적 연구들은 사용자가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선호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회피하는 경향을 일관되게 보임을 주목했다.⁴⁴⁾ 이후의 심리학·정치학 연구는 이러한 경향이 단순한 기호성 선호가 아니라, 신념 위협을 회피하려는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의 결과임을 밝히며, 정치적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반대 정보는 배제하는 인지적 메커니즘을 경험적으로 실증하였다.⁴⁵⁾

기술 봉건주의적 플랫폼 알고리즘은 바로 이러한 심리적 경향을 기계적으로 활용하여 강화한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정보 선택 패턴을 학습하고, 더 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선택적 노출의 경향성을 기술적으로 증폭하는 피드백 구조를 구축한다.⁴⁶⁾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과 같이 자극적이

43) 에코 체임버, 필터 버블, 그리고 가짜뉴스의 상호작용과 이론적 전개에 관해서는, 조항제, 『에코 체임버: 이론적 추적』 (서울: 컬처북, 2025) 참조.

44) Leon Festinger,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김창대 역, 『인지부조화 이론』 (서울: 나남, 2016).

45) Natalie Jomini Stroud, *Niche News: The Politics of News Cho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35-42.

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정보는 검열되기보다 오히려 확산되기 쉬운데, 이는 감정적 호소력이 높은 콘텐츠가 알고리즘의 참여 최적화 구조와 결합하여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기 때문이다.⁴⁷⁾ 이러한 현상은 특히 ‘당파적 신뢰도 격차’(partisan believability divide)와 결합할 때 폭발적으로 강화된다. 최근 연구는 특정 정치 집단이 제도권 언론 전체에 대해 구조적 불신을 표출하며, 보수·진보 진영 간 언론 신뢰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고한다. 이른바 ‘적극적 불신’(active distrust)은 단순한 회피를 넘어 제도권 정보에 대한 인지적 거부를 유발하며, 알고리즘은 이러한 불신 자체를 신호로 학습하여 제도권 밖의 대안 정보—종종 음모론, 극단주의 콘텐츠, 혐오 발화—를 해당 집단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경향을 보인다.⁴⁸⁾ 그 결과 사용자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 생태계에서 점차 고립되며,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정서적 공명을 일으키는 정보만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의 사회적 중요성은 약화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현실 세계를 해석하기 위해 공유하던 상징적 기준이 붕괴하면서, 공통의 인식 기반—즉 ‘진실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 급속히 침식된다.⁴⁹⁾

마크 안드레예비치(Mark Andrejevic)가 지적한 ‘상징적 효율성의 감소’(decline of symbolic efficiency)는 이러한 사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46) Taina Bucher, *If...Then: Algorithmic Power and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105-110.

47) Soroush Vosoughi, Deb Roy, and Sinan Aral, “The Spread of True and False News Online,” *Science* 359 (2018), 1146-1151; Hunt Allcott and Matthew Gentzkow,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2 (2017), 211-236.

48) 최미연·이형석, “사회적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언론인 평가와 뉴스정보 신뢰도, 정치사회 관심도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8/1 (2024), 207-238; 이현우·전창영·김선호, “온라인 뉴스 플랫폼 지각변동: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로 본 한국의 디지털 뉴스 지형,” 『미디어서베이』 11/3 (2025), 1-18.

49) Sunstein, #Republic, 112-118.

개념이다. 정보 과잉과 알고리즘적 필터링이 결합된 디지털 환경에서는 의미를 조직해주던 기존의 상징적 준거틀이 붕괴하며, 개인은 객관적 사실보다 정서적 신호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⁵⁰⁾ 필터 버블은 이러한 정서적 의존을 만족시키는 상업적·정서적 폐쇄회로로 기능하며, 사용자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감정적·인지적 함정을 형성한다. 결국 알고리즘은 개인의 정서적 취향과 불안을 상품화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기술 봉건주의적 통치의 심리적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벨기에 법학자 루브루아(Antoinette Rouvroy)의 연구에 기초하여 사회학자 김홍중이 설득력 있게 분석했듯이, 알고리즘 통치성은 주체의 내면적 동기나 의도와 무관하게 데이터 수준에서 행위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데이터 행태주의’(data behaviorism)를 구현한다.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찰하거나 의미를 부여할 기회를 박탈하며, 앞서도 언급했듯이 주체를 분할 가능한 분체로 해체시킨다. 더 나아가 플랫폼 자본주의는 전통적 자본주의가 요구하던 ‘정신’(spirit) — 즉 노동의 정당화 서사나 문화적 매력 — 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의 의식적 동의 없이도 비의식적·비지향적 수준에서 가치를 추출한다.⁵¹⁾

3. 가짜뉴스 및 혐오 표현을 동반한 음모론의 확대 재생산

기술 봉건주의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이 민주적 공론장을 파괴하며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II장에서

50) Mark Andrejevic, *Infoglut: How Too Much Information Is Changing the Way We Think and Know* (New York: Routledge, 2013), 32-37; Mark Andrejevic, “The Big Data Divid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8 (2014): 1673-1689; 알고리즘 통치성에 관한 저자의 최근 논의는 Mark Andrejevic, *Automated Media*. 이희은 역, 『미디어 알고리즘의 욕망』 (서울: 컬처북스, 2021) 참조.

51) 김홍중, “플랫폼의 사회이론,” 37.

분석했듯이, 기술 봉건주의는 자본의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대다수의 대중을 잉여적 존재로 배제한다. 이들은 경제 구조에서만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상징적 질서가 파편화되면서 사회적 의미망에서도 이중으로 소외된다. 이러한 이중의 소외(경제적, 상징적 소외) 속에서, 잉여적 존재로 전락한 대중은 자신의 구조적 불만과 소외감을 해소할 출구로 ‘대안적 서사’ 즉 ‘음모론’에 쉽게 경도될 수 있다. 음모론은 복잡한 구조적 모순을 ‘특정 적대 세력’(엘리트, 특정 집단 등)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이들의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단순하고 자극적인 서사를 제공한다.⁵²⁾ 알고리즘은 이러한 정서적 취약성을 파고들어 지대를 추출한다. ‘루머 폭탄’(rumor bombs)과 같은 음모론적 콘텐츠는 ‘감정 진실’(emo-truth)의 형태로 가장 격렬한 정서적 반응(분노, 공포)을 유발하며, 이는 알고리즘에 의해 즉각 포착되어 해당 집단에게 증폭·재생산된다. 음모론의 유통은 기술 봉건주의의 지대 추출 모델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핵심 수익 사업이다.⁵³⁾

최근 한국 사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극우 유튜버 등을 통해 끊임없이 유포된 현상은 이러한 메커니즘의 대표적 사례이다.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결합한 알고리즘적 증폭은 단지 온라인상의 해프닝에 그치지 않고, 결국 12.3 비상계엄과 같은 초유의 민주주의 위기 사태를 촉발하는 현실 정치의 동력이 되었다. 이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전체주의의 기원』과 「정치에서의 거짓말」에서 분석한 ‘조직적 거짓말’의 현대적 구현

52) 전상진, 『음모론의 시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4); 박창호, 『가짜뉴스의 사회학』 (서울: 서울경제경영, 2024).

53) Jayson Harsin, “The rumour bomb: Theorising the convergence of new and old trends in mediated US politics,” *Southern Review: Communication, Politics & Culture* 39/1 (2006), 84-110; Jayson Harsin, “A critical guide to fake news: From comedy to tragedy,” *Pouvoirs* 164/1 (2018), 99-119; Jayson Harsin, “Post-truth Right-Wing Populism: Emo-truth from French Anti-gender Theory Movement to Trump,” *Communication, Culture and Critique* 11/1 (2018) 35-52.

이다.⁵⁴⁾ 아렌트는 나치 정권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유포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얻고 정치적 통제를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개별적인 거짓말이 아닌, 체제 차원에서 진실을 오도하고 잘못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확산시켜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현실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다. 아렌트는 이러한 조직적 거짓말이 개인의 사고와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⁵⁵⁾

이 글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직적 거짓말이 특정한 진실을 은폐하는 데 그치는 전통적 의미의 거짓말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조직적 거짓말은 정치 영역의 근간을 이루는 ‘우발적 사실’, 즉 아렌트가 말한 사실성 자체를 파괴의 대상으로 삼는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선거 결과라는 구체적인 우발적 사실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며, 이는 사실성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탈진실적 전략의 핵심이다. 이러한 조직적 거짓말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중이 거짓(부정선거)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목표는 아무도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렌트가 경고했듯이, 사실과 거짓의 구분이 무너질 때, 대중은 현실에서 방향을 잡는 감각과 사유 및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밭 딛고 선 ‘공동 세계’와 정치 영역의 근간 자체의 파괴를 의미한다. 아렌트의 말대로, “전체주의 지배의 이상적인 신하는 폴수 나치나 폴수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사실과 허구(즉 경험의 현실)의 차이와 참과 거짓(즉 사유의 기준)의 차이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⁵⁶⁾

54)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 2』 (서울: 한길사, 2006), 71-107; Hannah Arendt, “Lying in Politics,” in *Crises of the Republic*. 김선옥 역, “정치에서의 거짓말,” 『공화국의 위기』 (서울: 한길사, 2011), 31-86.

55)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김선옥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서울: 한길사, 2006), 349.

기술 봉건주의의 알고리즘은 바로 이 ‘사실성 공격’을 자동화하고 가속화한다. 즉, 아렌트가 묘사한 조직적 거짓말—사실성 자체에 대한 공격—이 알고리즘을 통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증폭된다. 알고리즘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중의 정서적 혼란을 포착하여 막대한 지대를 추출한다.⁵⁷⁾ 결국 기술 봉건주의는 탈진실을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는 아니라, 탈진실(공동 세계의 파괴)을 자신의 핵심 수익원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는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매개로 하여 12.3 비상계엄 및 극우세력의 준동과 같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수반한다.

IV. 기독교사회윤리학의 진리 개념 재사유

기술 봉건주의가 현실 자체를 교묘히 조작하고 인식 주체의 진실 접근권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시대에, 객관적 사실의 복원만을 외치는 것은 충분한 윤리적 응답이 될 수 없다. 오늘날 빅테크 플랫폼에서는 시장과 이윤의 논리가 플랫폼과 임대료로 대체되고, 이용자들은 클릭하고 스크롤할 때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영주들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각 개인이 접하는 정보 세계는 알고리즘에 의해 제각기 다르게 구성되므로, 현실 인식 자체가 기술 권력에 예속된 조건에서 단순히 사실 확인만을 요구하는 대응은 문제의 증상에만 매달리는 순진한 처방일 뿐이다. 이는 탈진실 시대를 가능케 한 정치경제적 구조를 간과한 채 표피적 대응에 머무는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경제윤리학자 강원돈의 지적처럼 구조적 불의는 “자본가의 양심이나 도덕적 감수성에 호소”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법과 제도를 통한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⁵⁸⁾

56) Arendt, 『전체주의의 기원 2』, 276.

57) Zuboff, 『감시 자본주의 시대』, 267-272.

58) 강원돈, 『기독교경제윤리론』 (서울: 동연, 2024), 34.

따라서 기독교사회윤리학은 새로운 기술·경제적 조건 속에서 진리, 해방, 공동선이라는 핵심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신학적·윤리적 성찰은 기술 영도 안에서 억압된 진실의 윤리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제II장과 III장에서 살펴봤듯이 기술 봉건주의하에서 진실이 어떻게 왜곡·차단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제는 그 핵심 문제들에 직접 대응하는 윤리적 응전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개인적 도덕 설교에 머물지 않고 구조적 악에 맞서는 기독교윤리의 공적 책임을 자각하는 일이다.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전통이 강조하듯이 신학은 현실을 형성하는 사회제도의 문제에 응답하고 이를 변혁함으로써 더욱 많은 선과 더 큰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사회윤리학은 진리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에서 재사유함으로써 기술 봉건주의의 도전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반지성’의 사유화에 맞서 ‘공동선’(common good) 개념을 재사유해야 한다. 기술 봉건주의는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 등 원래 사회적 공유자산이어야 할 지식 자원을 소수 디지털 영주의 사적 지대추출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에 맞서 기독교사회윤리학은 이러한 지식 자원들을 사회 전체의 공동선으로 재규정하고, 모두에게 열린 디지털 공유지로 재전환하기 위한 윤리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실제로, 기독교경제윤리 전통에서는 이미 기업과 산업 영역에서 공동선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윤리적 가치가 점차 법적·제도적 고려에서 밀려나고, 경제 효율성과 이윤논리가 우선시되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⁵⁹⁾ 이는 사회적 가치보다 사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때 공동선 개념이 얼마나 쉽게 후퇴하는지를 명확히 지적한 사례이다. 리히의 기독교경제윤리적 관점에서 공

59) Arthur Rich, *Business and Economic Ethics: The Ethics of Economic Systems*, trans. Georges Enderle (Göttingen: Mohr Siebeck, 2006), 491-492.

동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유화 경향에 저항하여 사회적 연대와 정의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다.

강원돈 역시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 제도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기업 소유의 사회화를 이루어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평가하며,⁶⁰⁾ 이것이 자본-노동 간의 민주적인 관계를 실현하려는 실험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는데 이 글의 맥락에서 보자면 일반지성의 사유화를 저지하고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강원돈은 이 제도의 핵심을 “기업의 생산자본에 노동조합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임노동자기금의 법제화”라고 명시하며,⁶¹⁾ 자본의 경영 전권에 대한 실질적 제약은 “노동자들이 기업의 자본 형성에 집단적으로 참여하여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한다.⁶²⁾ 이처럼 경제 영역에서 공적인 통제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오늘날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플랫폼 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해 ‘데이터 배당’을 요구하거나,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감시할 ‘공공 알고리즘 위원회’ 설치, 더 나아가 데이터 생산자로서의 사용자 권리를 대변할 ‘플랫폼 사용자 노조’의 법제화 같은 구체적 상상력이 요청된다. 사회적으로 생성된 지식과 정보는 특정 기업의 이윤만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 활용되고 공유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제도적 대안으로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 커먼즈(Data Commons)의 법제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공공재로 전환하고, 플랫폼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해 디지털 배당(digital dividend)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공공 알고리즘 위원회 설치를 통해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차별을 감시하고 규율할 수 있다. 셋째, 공적 자금

60) 강원돈, 『기독교경제윤리론』, 310.

61) 위의 책, 303.

62) 위의 책, 307.

을 투입한 공공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독점 플랫폼에 대한 대안적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플랫폼에 종속된 디지털 농노 상태에 응답하여 ‘해방’(liberation) 개념을 재사유해야 한다. 오늘날 수많은 사용자가 거대한 플랫폼에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면서,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지만 알고리즘적 지배 아래 디지털 농노처럼 살고 있다. 정작 당사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지 못한 채 온라인 활동으로 봉건적 질서의 재구축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술 봉건주의의 섬뜩한 현실이다. 기독교적 진리의 실천적 목표는 추상적인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억압, 곧 알고리즘 지배와 데이터 수탈로부터 구체적인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추상적 진리는 불완전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해방신학의 대부 구티에레즈가 강조했다. “교회, 교회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편드는 것으로 진리 편에 서야 하며 그들을 구조적 억압과 주변화에서 자유롭게 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그의 말대로 “회개한다는 것은 가난하고 압제 받는 사람들의 해방운동에 투신하는 것이다. 단호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처신하는 것이다. 그저 관대한 아량만을 가지고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인 행동을 구사하여 투신하는 것이다.”⁶³⁾ 억눌린 자들의 해방을 위한 실천이 곧 참된 진리의 실천이며, 이러한 실천을 성찰하는 데서 바른 신학이 탄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통찰이다. 디지털 영토에서의 해방은 단순히 접속을 끊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분류하고 포획할 수 없는 ‘인간의 얼굴’을 회복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사회윤리학의 진리 담론은 디지털 시대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

63) Gustavo Gutié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History, Politics, and Salvation*. 성영역, 『해방신학: 역사와 정치와 구원』 (서울: 분도출판사, 1990), 263.

방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사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불의한 구조를 타파하고 피억압자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진리를 지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확립하기 위한 법제화, 플랫폼 이용자의 권리장전 제정,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등이 요구된다. 나아가 데이터 생산자로서 이용자의 권리를 대변할 ‘플랫폼 이용자 노조’의 법적 인정과 같은 새로운 연대 형태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 없이는 알고리즘적 지배로부터의 해방은 공허한 수사에 그칠 것이다.

셋째, 정보 상품으로 전락한 진실에 대항하여 진리를 ‘증언’(testimony, martyria)의 실천과 더불어 재사유해야 한다. III장에서 분석했듯이, 알고리즘은 클릭 수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 때문에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정서적 반응을 극대화하는 정보 상품, 즉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유통시키고 있다. 이처럼 사실성 자체에 대한 공격이 만연한 탈진실의 시대에는 거짓을 비판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정보 정치가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객관적 사실의 복원만으로는 진리를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사회윤리학은 증언이라는 인격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을 진리의 핵심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이는 해방신학에서 강조하듯이 억압당하는 이들, 빈곤한 이들만이 세계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이른바 “가난한 이들의 인식론적 특권”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의 논리와도 긴밀히 닿아 있는 문제들이다.⁶⁴⁾ 기술 영토 안에서 억압되고, 알고리즘에 의해 은폐되며, 잉여적 존재로 배제된 이들의 고통과 경험을 드러내는 실천적 증언 행위, 즉 이들 안에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고발하는 행위 자체가 탈

64) Delwin Brown, “Thinking about the God of the poor: Questions for liberation theology from process though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57/2 (1989), 267-281.

진실 시대를 돌파하는 중대한 진리 실천의 형식이 되어야 한다. 증언은 데이터로 환원되지 않는 인간의 고통을 공론장에 현현시킴으로써, 때때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의 폐쇄회로에 ‘오류’(glitch)를 일으키고 진실의 틈을 여는 저항적 사건이 된다.

이상과 같이, 공동선, 해방, 증언으로 재구성된 진리 개념은 기술 봉건주의 시대에 기독교사회윤리학이 취해야 할 윤리적 응전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재사유를 통해 진리는 단순한 사실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영성의 문제, 곧 모두의 삶을 해치는 거짓의 구조에 맞서 삶을 살리는 진리를 실현하는 과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V. 결론: 진실 접근권의 윤리와 비판사회윤리학으로의 전환

이 글은 탈진실 문제를 사회·문화적 현상을 넘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클라우드 자본의 권력 구조와 기술 봉건주의라는 새로운 정치경제학적 질서의 구조적 결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 영토 안에서 억압된 진실의 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진실 접근권의 윤리와 더불어 기독교사회윤리학의 비판사회윤리학으로의 발전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진실 접근권의 윤리는 기독교사회윤리학이 추구해 온 제도윤리적 과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첫째, 지대 환수와 재분배다. 디지털 플랫폼이 추출하는 지대는 사회 전체가 생산한 일반지성의 사유화를 통해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 플랫폼 기업 초과이익에 대한 공적 부담금 부과, 그리고 이를 재원으로 한 데이터 배당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공유자원(common)에 대한 정당한 권리 회복이다. 둘째, 플랫폼 독점 규제와 알고리즘 민주화다. 빅테크 기업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를 법제화하고, 공공 알고리즘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알고리즘 설계와 운영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나아가 플랫폼 분할(platform unbundling) 등 독점 해체 조치와 함께,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장 독점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 권리의 범제화다. 데이터 커먼즈 구축을 통해 사회적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공공재로 전환하고, 플랫폼 이용자 노조와 플랫폼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디지털 농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진실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조작과 차별에 대한 구제 수단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과제들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자본가의 양심이나 도덕적 감수성에 호소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 않으며, 오직 법적 규율과 정책적 적용을 동반한 구조적 변혁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한 것들이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기독교사회윤리학을 비판사회윤리학(Critical Social Ethics)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비판사회윤리학으로의 전환은 윤리적 질문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의 윤리학이 “무엇이 객관적 진실인가?”를 묻는 인식론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 머물렀다면, 비판사회윤리학은 “누구에게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되는가? 왜 그들의 진실(증언)은 알고리즘에 의해 배제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인식론적 불의를 통해 누가 이익(지대)을 얻고 있는가?”를 묻는다. 이는 곧 기독교사회윤리학이 반(反)지대 투쟁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논했듯이 ‘기술 봉건주의’라 불리는 더욱 악화된 형태의 사회 체제로 묘사되는 현대 자본주의는 생산적 투자보다 정치적·법적 특권을 통한 약탈적 지대추구에 의존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독점과 네트워크 효과는 바로 이러한 약탈적 축적 전략의 전형이다. 따라서 기독교윤리적 실천은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자본의 구

조적 약탈(지대추구)에 저항하는 정치적 대응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비판사회윤리학은 봉건적 지배 관계로 퇴행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억압적 구조를 폭로하고, 진실의 생산과 유통 수단을 민주화하며, 억압된 진실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윤리학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생산한 사회의 공유자원을 독점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막대한 수익을 지대로 추출하고 있는 빅테크 자본에 맞서 사회적 공동선을 복원하고, 알고리즘 지배에 맞서 민주적 통제권을 확립하며, 탈진실의 공모에 맞서 진실 접근권을 제도화하는 투쟁 속에서 그 실천적 의미를 획득한다.

참고문헌

- 강원돈. 『기독교경제윤리론』. 서울: 동연, 2024.
- 김종길. “디지털 사회의 심화와 ‘탈진실’ 시대의 진실 찾기.” 『사회사상과 문화』 26/3 (2023), 243-287.
- 김홍중. “플랫폼의 사회이론: 플랫폼 자본주의와 알고리즘 통치성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41 (2022), 7-48.
- 박창호. 『가짜뉴스의 사회학』. 서울: 서울경제경영, 2024.
- 이현우 · 전창영 · 김선호. “온라인 뉴스 플랫폼 지각변동: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로 본 한국의 디지털 뉴스 지형.” 『미디어서베이』 11/3 (2025), 1-18.
- 전상진. 『음모론의 시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4.
- 정용택. “지대추구 자본주의에 대한 기독교경제윤리적 비판.” 『기독교사회윤리』 61 (2025), 339-386.
- 조항제. 『에코 체임버: 이론적 추적』. 서울: 컬처룩, 2025.
- 최미연 · 이형석. “사회적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언론인 평가와 뉴스정보 신뢰도, 정치사회 관심도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8/1 (2024), 207-238.
- Allcott, Hunt and Matthew Gentzkow.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2 (2017), 211-236.
- Andrejevic, Mark. *Automated Media*. 이희은 역. 『미디어 알고리즘의 욕망』. 서울: 컬처북스, 2021.
- Andrejevic, Mark. *Infoglut: How Too Much Information Is Changing the Way We Think and Know*. New York: Routledge, 2013.
- Andrejevic, Mark. “The Big Data Divid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8 (2014), 1673-1689.
- Arendt, Hannah.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김선옥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서울: 한길사, 2006.
- Arendt, Hannah. “Lying in Politics.” in *Crises of the Republic*. 김선옥 역. 『공화국의 위기』, 31-86. 서울: 한길사, 2011.

-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 2』. 서울: 한길사, 2006.
- Bowsher, Josh. “After truth, after shame... after information politics? Rethinking the epistemologies of human rights in the digital-authoritarian conjunctur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28/8-9 (2024), 1501-1525.
- Brown, Delwin. “Thinking about the God of the poor: Questions for liberation theology from process though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57/2 (1989), 267-281.
- Bucher, Taina. *If... Then: Algorithmic Power and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Bufacchi, Vittorio. “Truth, lies and tweets: A consensus theory of post-truth.”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47/3 (2021), 347-361.
- Conduit, Dara. “The political economy of digital authoritarianism: evidence from the Iranian regime’s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Democratization* (2025), 1-23.
- Coveri, Andrea, Claudio Cozza, and Dario Guarascio. “Monopoly Capital in the time of digital platforms: a radical approach to the Amazon cas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46/6 (2022), 1341-1367.
- Dean, Jodi. *Capital’s Grave: Neofeudalism and the New Class Struggle*. London: Verso, 2025.
- Dean, Jodi. “Neofeudalism: The End of Capitalism,” (2020.5.12.) <https://lareviewofbooks.org/article/neofeudalism-the-end-of-capitalism>, 2025년 11월 10일 접속.
- Deleuze, Gilles. “Postscript on the Societies of Control.” *October* 59 (1992), 3-7.
- Durand, Cédric. “Scouting capital’s frontiers.” *New Left Review* 136 (2022), 29-39.
- Durand, Cédric. *How Silicon Valley Unleashed Techno-feudalism: The Making of the Digital Economy*. 주명철 역, 『기술 봉건주의: 빅데이터 제국에 포획된 현대 경제와 민주주의』. 서울: 여문책, 2025.
- Dyer-Witheford, Nick. *Cyber-Marx: Cycles and Circuits of Struggle in*

- High-Technology Capitalism*. 류현·신승철 역, 『사이버-맑스: 첨단기술 자본주의에서의 투쟁주기와 투쟁순환』. 서울: 이후, 2003.
- Festinger, Leon.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김창대 역, 『인지부조화 이론』. 서울: 나남, 2016.
- Gilbert, Jeremy. “Techno-feudalism or platform capitalism? Conceptualising the digital socie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27/4 (2024), 561-578.
- Gutiérrez, Gustavo. *A Theology of Liberation: History, Politics, and Salvation*. 성염 역, 『해방신학: 역사와 정치와 구원』. 서울: 분도출판사, 1990.
- Harsin, Jayson. “A critical guide to fake news: From comedy to tragedy.” *Pouvoirs* 164/1 (2018), 99-119.
- Harsin, Jayson. “Post-truth Right-Wing Populism: Emo-truth from French Anti-gender Theory Movement to Trump.” *Communication, Culture and Critique* 11/1 (2018), 35-52.
- Harsin, Jayson. “The rumour bomb: Theorising the convergence of new and old trends in mediated US politics.” *Southern Review: Communication, Politics & Culture* 39/1 (2006), 84-110.
- Hui, Yuk. “Modulation after control.” *New Formations* 84/85 (2015), 74-91.
- Ireland, Paddy. *Property in Contemporary Capitalism*. Bristol, UK: Bristol University Press, 2024.
- Kakutani, Michiko. *The Death of Truth*. New York: HarperCollins, 2019.
- Lazzarato, Maurizio. *Signs and Machines: Capitalism and the Production of Subjectivity*. 신병현·심성보 역, 『기호와 기계』. 서울: 갈무리, 2017.
- Linardakis, Peter Alexander. “Neo-Feudalism And The Crisis Of Capitalist Hegemony.” *Essex Student Journal* 16/1 (2025), 1-26.
- Marx, Karl.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김호균 역,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1』. 서울: 그린비, 2007.
- McIntyre, Lee. *Post-Truth*. 김재경 역, 『포스트트루스』. 서울: 두리반, 2019.
- Meisner, Lukas and Pietro Daniel Omodeo. “Beyond Facticity and Post-Truth: Towards a Marxist Political Epistemology.” *Historical Materialism* 33/1 (2025), 88-118.
- Morozov, Evgeny. “Critique of techno-feudal reason.” *New Left Review*

- 133/134 (2022), 89-126.
- Ott, Michaela. "Dividual subjectivations in the society of control." *Coils of the Serpent* 5 (2020), 163-174.
- Pariser, Eli. *The Filter Bubble: What the Internet Is Hiding from You*. 이현숙·이정태 역. 『생각 조종자들』. 서울: 알키, 2011.
- Rantala, Juho and Mirka Muilu. "Simondon, Control and the Digital Domain." *Theory, Culture & Society* 41/4 (2024), 23-40.
- Rich, Arthur. *Business and Economic Ethics: The Ethics of Economic Systems*. trans. Georges Enderle. Göttingen: Mohr Siebeck, 2006.
- Saito, Kohei & Ryuji Sasaki. "Rentier capitalism, technofascism and the destruction of the common," *Area Development and Policy* (2025), 1-15.
- Srnicek, Nick. *Platform Capitalism*. 심성보 역. 『플랫폼 자본주의』. 서울: 킹콩북, 2020.
- Srnicek, Nick. "Value, rent and platform capitalism." In Julieta Haidar and Maarten Keune eds., *Work and Labour Relations in Global Platform Capitalism*, 29-45.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2021.
- Stan, Vali. "Big Tech Rentiership and the Techno-Feudal Hypothesis." *The New School Economic Review* 13 (2025), 13-28.
- Stroud, Natalie Jomini. *Niche News: The Politics of News Cho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Sunstein, Cass R. *#Republic: Divided Democracy in the Age of Social Medi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 Swyngedouw, Erik. "Capitalism Is Over. But the New Is Worse: Reflections on Rent, Services, and Capitalist Feudalism." In F. Moulaert and A. Mehmood eds., *The Value of Place: Exploring Regional Development and Land Use Strategies*, 21-36. Cheltenham: Edward Elgar, 2025.
- Tufekci, Zeynep. "Algorithmic Harms Beyond Facebook and Google." *Colorado Technology Law Journal* 13 (2015), 203-218.
- Varoufakis, Yanis. *Technofeudalism: What Killed Capitalism*. 노정태 역. 『테크 노퍽달리즘: 클라우드와 알고리즘을 앞세운 새로운 지배 계급의 탄생』. 서울: 21세기북스, 2024.
- Vosoughi, Soroush, Deb Roy, and Sinan Aral. "The spread of true and false

news online.” *Science* 359 (2018), 1146-1151.

Wark, McKenzie. *Capital Is Dead: Is This Something Worse?*. London: Verso, 2019.

Westra, Richard.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Capitalism: Financialization, Globalization and Neofeudalism*. London: Routledge, 2024.

Wu, Tim. *The Attention Merchants: The Epic Scramble to Get Inside Our Heads*. 안진환 역, 『주목하지 않을 권리』. 서울: 알키, 2019.

Zuboff, Shoshana.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김보영 역, 『감시 자본주의 시대』. 서울: 문학사상사, 2021.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s://en.wikipedia.org/wiki/Oxford_English_Dictionary, 2025년 11월 10일 접속.

“post-truth.”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post-truth>, 2025년 11월 10일 접속.

논문투고일: 2025년 11월 17일

심사개시일: 2025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07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오늘날 공론장을 위협하는 ‘탈진실’ 현상을 단순한 인식론적 위기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기술 봉건주의’ 질서와 구조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분석한다. 빅테크는 클라우드 자본과 알고리즘 권력을 통해 ‘일반지성’을 사유화하여 지대추구적 수익 모델을 구축하며, 이 과정에서 진실은 플랫폼이 조정하는 정보 상품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구조는 감정적 동원, 에코 체임버, 필터 버블 등 탈진실을 강화하는 기제들과 공모하여 공론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사회윤리학이 진리, 해방, 공동선의 개념을 재사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특히 ‘진실 접근권’의 확립을 핵심 윤리로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기술 봉건주의의 지대추구적 권력에 맞서, 기독교사회윤리학은 진실의 구조적 은폐에 저항하고 정의를 모색하는 ‘비판사회윤리학’으로 발전해야 함을 역설한다.

주제어: 기술 봉건주의, 탈진실, 알고리즘 지배, 지대 추출, 일반지성, 진실 접근권, 공동선
